

구미공단 LG · 삼성 “감원 열풍”

생산라인 통폐합 구조조정으로 대폭 감원 ... 실업급여 신청 급증

경북 구미공단에 본사나 사업장을 둔 대기업들이 잇단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감원 열풍이 불고 있다.

LG전자 구미사업장은 PDP 모듈 공장인 A1 라인의 가동중단하고 A2와 A3라인에 통합하면서 생산직 인원 중심으로 인력 구조조정에 들어갔다고 6월25일 발표했다.

LG전자는 감원인력 목표치를 정하지 않았지만 전반적인 수출경기 하락에 따라 상시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오랫동안 침체에 빠졌던 LG필립스LCD도 4월말 구미와 과주사업장의 관리직 인원 가운데 300여명을 감원했다.

LG필립스LCD는 사내 협력기업 인원을 줄이고 신입사원을 채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연감소에 따른 인력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LG마이크론도 4월말까지 직원 100여명으로부터 희망퇴직을 받았고, LG전자의 구조조정에 따라 추가감원도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구미사업장도 6월 초부터 본사의 대대적인 경영진단을 받고 있어 인력감축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삼성전자는 상시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직원들로부터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채권단이 정상화 방안을 모색중인 대우일렉트로닉스(옛 대우전자)도 조만간 1단계 구조조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구미를 비롯해 광주 등 전국 8개 공장과 연구소 등에서 4000명을 고용하고 있는 대우일렉트로닉스의 채권단은 장기적으로 직원수를 절반 수준인 2000명 정도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1단계로 200명 정도를 감원할 계획이다.

브라운관 유리를 생산하는 한국전기초자는 6월7일 재고 증가에 따라 TV용 브라운관 생산라인 3개의 가동을 중단했다.

한국전기초자는 정확한 감원규모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대규모 감원을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미공단에 사업장을 둔 대기업들이 잇따라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구미공단 고용인원은 2005년 10월 8만756명을 정점으로 계속 하락해 2007년 5월말 현재 7만4000여명으로 줄었다.

실업급여 신청자도 2006년 1년간 8069명에 불과했으나 2007년 5월말 현재는 4425명으로 2006년의 절반을 넘어서 연말까지 1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6/25>